



자연친화적 불사



절이 들어서 있는 산중은 어디라고 할 것 없이 명당이다. 조용하고 자연 속에 묻혀있기에 찾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 준다면 바로 그곳이 명당임에 틀림없다. 딱히 불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찾는 이유는 바로 자연속에 자연 친화적으로 존재해 있기 때문이다. 환경 보호문제는 요즘 들어 개발론자와 자연보호론자들 사이에 토론이 아닌,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 무척 안타깝다. 자신들의 주장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그런 물리적인 충돌은 자연친화적인 행동이 아니다. 이를 있는 큰절을 찾아보면 저절로 우리 자신들부터 먼저 자연 친화적인 마인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명찰일수록 수려한 자연경관 속에 있게 마련인데 많은 사찰들이 불사를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세속적인 개발과 다투는 불사를 거리낌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불교계가 하면 어떤 것이든 '자연친화적'이고, 개발론자가 하면 '자연친화적'이 아닌 것'은 착각이고 깊이 생각하고 넘어갈 대목이다.

필자가 자연친화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사찰의 해우소다. 전통적인 양식의 변소를 고집하는 사찰이 있는가 하면 외경상으로 현대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오물을 정화하지 않고 그냥 흘러내버리는 해우소도 많다. 절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찾는 이가 많다면, 더욱 많은 신도들이 찾는 절이라면 생활오폐수의 양은 이미 자연친화적이지 않은 수준이 된다.

라인강을 끼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존재한다. 알프스의 제르마트에 있는 마터호른이란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곳을 올라가면 종타에 자그마한 산장이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산장의 크기 보다 그곳의 정화조 크기가 더 크고 견실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알프스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수원(水源)의 원천에서부터 철저히 정화하는 자연친화적인 현상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준다.

우리도 사람들부터 철저히 오폐수를 정화하도록 노력해보자.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폐수 정화에 필요한 정화조를 만드는 일은 가장 기초적인 자연친화적 불사다.

이근후(불교상담개발원장·본지 논설위원)

8월 5일부터 10여일 이상 실세 없이 내린 폭우로 낙동강 하류지역이 초토화되어 완전 복구도 이루어지지 못한, 또다시 9월1일 태풍 '루사'가 한 반도를 강타했다. '루사'는 서울 등

있는 가운데, '루사'는 국토가 황폐화 될 만큼 엄청난 재해를 입혔다. 낙동강은 지난번 집중호우에 이어 다시 홍수경보가 발령되는 등 범람위기를 맞았다. 기상악화로 항공기와 여

태풍 자체의 위력으로 볼 때 1959년 한반도를 강타한 '사라' 이후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다. 따라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은 태풍 자체의 위력이 컸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당국의 허술한 안전관리와 재해대책,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수해의 사망, 실종자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산사태, 가옥의 붕괴 및

하천변을 오가거나 잔류를 한 것으로 보아 안전불감증도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하천에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제방구조물이다. 그러나 이 구조물을 그동안 소홀히 다루었고 또한 제방에 관한 연구도 부족했다. 이 때문에 하천피해가 특히 심했다. 지금까지는 하천제방 시공은 하천에 있는 재료를 좌우로 긁어모아 놓고 간단히 잔디나

또한 정부가 대국민 수방홍보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을 국민에게 사실대로 공고하여 국민들이 협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을 주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국민 사업은 강도 높은 수방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민방위훈련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정부는 국가 기간시설인 하천시설을 과소평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매년 지원해 온 기간시설물 투자가 도시시설에 70%이상 편중되어 있고, 하천시설물에는 13%에 불과한 점을 보더라도 극명히 드러난다. 이제라도 정부는 하천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복지선진국가로 가는 길은 수자원시설과 환경복합시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태풍 '루사'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가르침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됐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안상진 충북대학교수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200여명의 인명과 4조3천억원의 재산 피해를 낳았다.

전 세계가 기상재해로 몸살을 앓고

객선 운항이 한때 중단되었으며, 경부 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88고속도로도 산사태로 통제되는 등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30개 노선 61곳에서 정상적인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강풍과 산사태 등으로 전선이 끊기거나 전선주가 넘어져 66만 7천여 가구가 정전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하였다.

'루사'는 비의 양과 바람의 세기 등

수방시설 정기점검제도 도입을

매물, 하천의 급류에 의한 것이었다. 강릉시 왕산면 35번 국도 산사태도 안전규정 무시로 발생한 대표적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가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들 때 물의 위치와 결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63도의 경사각을 유지하도록 한 '절개지의 규정이 산사태를 유발시켰으며 또한 실종자의 대부분이 강풍이나 호우에도 불구하고 대피하지 않고

심는 정도였다. 이제부터라도 제방을 계획대로 시공하여 일정한 압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해야겠다. 뿐만 아니라 하천의 밑이나 제방과 같은 대형구조물과 수문, 육갑 등의 소형구조물이 포함되는 수방시설물은 일정 기간의 간격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한번 지어놓고 무너질 때까지 쓴다는 생각은 피해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열린 마당

출가연령제한

출가자 연령을 50세에서 40세로 낮추기로 한 교육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리가 팽팽하다. 조계종 교육원과 강원, 울진 등의 승가교육 지도자들은 교육의 효율성을 들어 찬성하는 반면, 상당수

종회의원들과 교구본사 및 일선 사찰에서는 출가 연령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없이 불문(佛門)을 좁힐 수는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지관·현각 스님에게서 각각 찬성과 반대 이유를 들었다.

지관 (중앙승가대 교수) 찬성



교육체제를 이수하기에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기에, 하나의 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물론, 늦은 나이에 출가해서도 젊은 수행자 못

게도 짧은 행자교육원기간(21일)에서부터, 구족계기간(7일), 3급 승가교시(7일)에서는 충분한 갈마(검증)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구족계 수계산림같은 경우는, 몇몇 계단 위원의 독선적이고 파편적인 운영 탓으로, 전에 정해놓은 갈마 규칙마저 어기는 일이 있기도 하다. 어쨌든 짧은 교육기간과 철저하지 못한 갈마로 인해 세속에서의 습을 제대로 교화시키지 못한 점에

반대 현각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은 다른 종교의 성직자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성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수행자로서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출가 연령을 낮출 경우 우뚝게 발심해 수행자로서의 길을 가려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나 포교활동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을 나이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젊은 스님이라도 잘못된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위계문제도 거론될 수 있겠지만, 법랍과 세속 나이를 감안해

현행연령으로 수행엔 육체적 한계

지 않게 신심과 끈기로서 대중생활과 수행이력을 잘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약 10년이라는 승가교육기간은 우선 육체적으로 많은 인내와 정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의 연령으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만 50 가까이 되어서 사미계를 받고 10년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60세를 넘기게 된다.

각 승가교시의 갈마(검증)와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안타깝

나으로 발심수행길 막아선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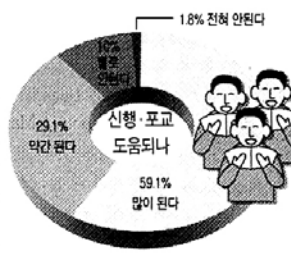
가 많다. 이 사람들이 몇 년 후 발심 출가하는 것을 막는 것은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사회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불교가 그것을 막아서는 안된다. 뒤늦게 출가해 경성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다수가 부적합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적합한 소수를 제한하는 것은 폭력이나 다름없다.

대우해주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사회에서도 결론을 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손아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물론 나이 든 사람들의 출가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교육과 승려의 자질 측면 등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연령을 제한한다는 것은 불교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종교임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불자의 생각

찬불가 보급

대부분의 불자들은 법회시간 외에 찬불가를 부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왜 찬불가들은 법회시간 이외에 찬불가를 부르지는 않는



"신행·포교에 큰 도움" 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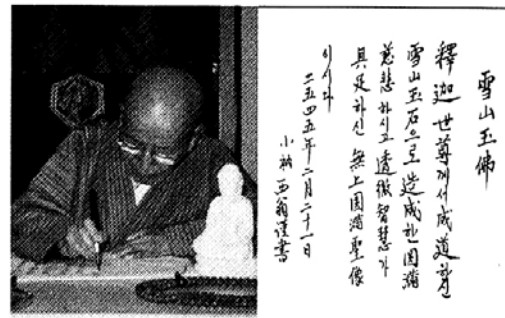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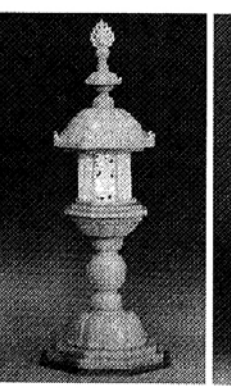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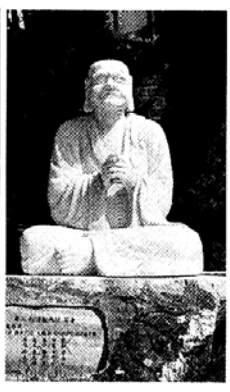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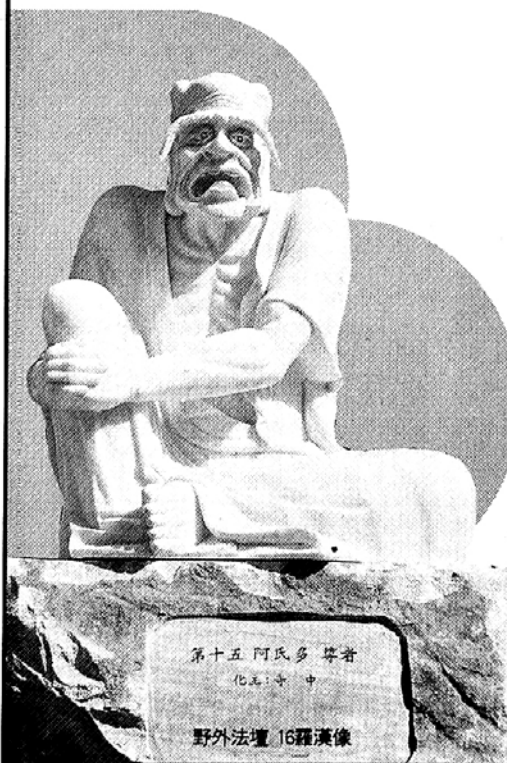
것일까? 그 이유를 조사해본 결과 총 응답자 110명 가운데 49명(44.6%)이 의식에만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 45명(40.9%)은 아는 곡이 많지 않아서, 8명(7.3%)은 각각 재미가 없어서, 흥이 안나서라고 응답했다. 또 찬불가 보급이 신행과 포교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지에는 65명(59.1%)이 큰 도움이 된다, 32명(29.1%)이 약간 도움이 된다, 11명(10%)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두식 기자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부처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세한빌딩 401호 TEL: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총림방장 서용 큰 스님 / 추천서